

# '평생 면역' 생겼다는 트럼프... 하버드대, "항체 보유 최대 4개월"

전문가들 "트럼프, 현재 면역 여부도 못 믿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 "내가 그것(코로나19에 걸릴 수 없고 퍼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게재하며 '걸릴 수 없고'라는 대목 뒤에 '면역이 생긴 것'(immune)이라고 따로 적기도 했다. 특히 미국 방송사 폭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마도 평생 면역일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정말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하면 평생 걸리지 않는 '면역 상태가 되는 걸까?

"코로나19 대응하는 항체 보유 기간은 최대 4개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되더라도 재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343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이들의 혈장을 혈액에서 분리한 뒤, 항체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린(IgG) 수치 변화를 지켜봤다. 그 결과, IgG 수치는 최대 4개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항체 반응이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후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항체인 IgA와 IgM 항체 수치는 약 2개월 미만으로 짧게 유지됐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감염내과 리첼 찰스 박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생기는 항체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면역학(Science Immunology)'에 최근 게재됐다.

"평생 면역? 현재 항체 생겼는지도 불확실하다"

지난 9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이 평생 면역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된 바 있다. 연구 결과 외에도 재감염으로 추측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상당수 발생했

다. 이에 사실상 '평생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생 면역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면역 상태인지조차 확실하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UC버클리 공중보건학부장 아서 레인폴드는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3주가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후 사흘 만에 퇴원, 열흘 만에 선거 유세를 재개했다.

평생 면역, 집단 면역, 항체 보유 기간... 여전히 코로나19에 관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항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완치자들도 안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콧물 흘리면 하루뒤 죽는다

### 코로나 감염 밍크 1만마리 떼죽음

밍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돼 폐사하는 사례가 네덜란드·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밍크는 털과 가죽이 겨울용 코트와 목도리의 재료로 이용되는 가치가 높은 동물이다.

호흡곤란 등 사람과 증상 비슷

증상 발현 후 하루 만에 죽기도

네덜란드·스페인서도 집단감염

밍크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유독 코로나에 취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유타주의 밍크 농장 9곳에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밍크는 8000마리에 이른다. 유타주의 밍크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이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타주의 수의사인 테일러 박사는 "지난 7월 농장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직후인



지난 8월 코로나에 감염된 밍크가 처음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부터 밍크에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스콘신주의 농장에서도 밍크 2000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폐사했다. 이에 지역 당국은 이 농장이 통째로 격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밍크는 사람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숨쉬기 힘들어하고, 콧물을 흘린다. 많은 밍크가 감염 증상을 보인 지 하루 만에 죽었다. 테일러 박사는 "특히 나이 든 밍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돼 죽고, 어린 밍크들은 대체로 무사했다"고 밝혔다.

UW 매디슨 수의학교 진단 연구소의 키스 폴슨 박사는 "밍크가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 중인 밍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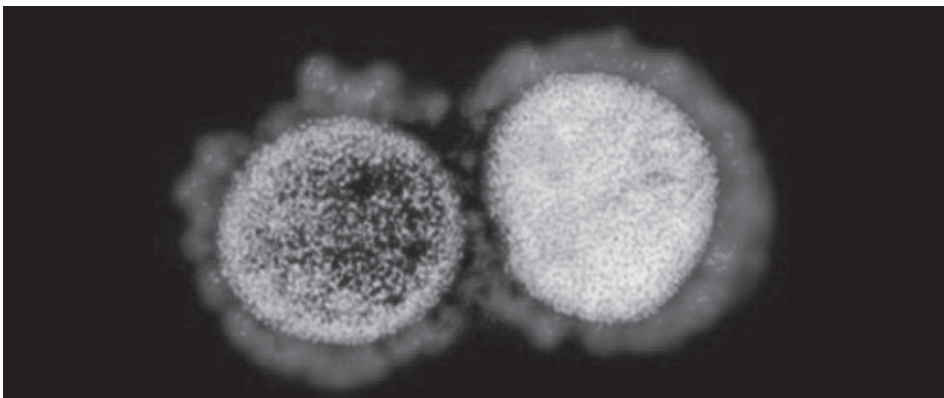
미국 국립수의과학원은 지금까지 개·고양이·사자·호랑이 등의 동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CNN은 어떤 점이 밍크를 코로나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스페인의 밍크 농장에서 전체 밍크의 87%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밍크 9만 27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역시 스페인 당국은 농장 직원이 감염돼 밍크에게 코로나가 옮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여러 농장에서 밍크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밍크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밍크 농장 100여 곳이 내년 3월까지 폐쇄된 바 있다.

## 코로나 질긴 놈... "휴대전화 액정·지폐서

### 28일간 안 죽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가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보다 훨씬 긴 것이다.

12일 영국 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액정 등과 같은 유리나 지폐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이러스학 저널'(Virology Journal)에 발표했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폐나 유리 표면에서 2~3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강철) 표면에서 최대 6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한 CSIR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도로 강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C 어두운 실내에 놓인 휴대전화 스크린이나 플라스틱, 종이 지폐 등의 표면에서 28일 동안 발견됐다. 같은 환경에서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17일 정도 살아있는 것과 대비된다.

기온이 올라가면 감염 위험은 줄어들었다. 바이러스는 40°C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24시간 이내로 감소했으며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더 강했다. 이는 여름보다 겨울에 확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또 천 같은 통기성 소재보단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매끄러운 물체 표면에 코로나 바

▲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제공 SARS-CoV-2 전자 현미경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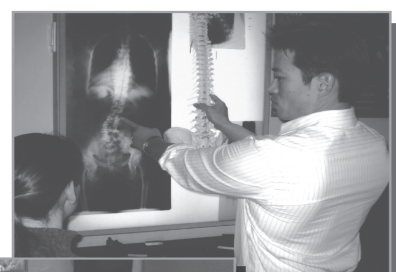
이러스가 더 오래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표면에서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소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카디프대 감염센터장을 지낸 론 에클레스 교수는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 더러운 손을 통해 퍼진다"며 "이번 연구는 사람의 신성한 점액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윤세웅 척추신경 교정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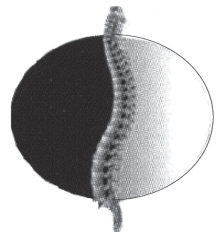
DR. MICHAEL YOON CENTURY CHIROPRACTIC WELLNESS CENTRE



『뱀 마디마디가 아프십니까?』 옛말에... 굴러가는 돌속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운동이나 교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척추신경이상에서 오는 증세:

- 두통과 목이 뻐뻐하고
-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저리고,
-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오고
- 관절마다 신경통이 오고,
- 두통후 각종 후유증이 오는 것 등이 척추신경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교통사고 = 척추  
운동사고 = 관절  
직장사고 = 근육

## 교정

### 건강비법(秘法)은?

퀘면·퀘식·퀘벤이 되어야 합니다. 잘먹고 잘자고 잘배출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체의 몸통은 관절마디마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운동과 교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 줌으로서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 윤세웅 원장 (교정사)

약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5년 개업 운영  
한국 교정사학 지도위원  
대한 합기도 검무관 캐나다부분 사범  
현.세기 척추교정의료원 운영

TEL: (403)289.8285 FAX: (403)338.1808 #312A - 3630 BRENTWOOD ROAD N.W. CALGARY AB. T2L1K8

윤세웅 척추신경의는 미국내 굴지의 각종 운송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정치료 하는 실력있는 척추신경전문 의입니다.